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성원권의 시각을 중심으로



조화성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hwscho@hanmail.net)



I. 서론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두 가지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지나치게 이주민 개인의 적응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민 개인의 적응 중심의 시각은 이주민이 지닌 보다 본질적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주민의 적응은 이주민이 한국사회의 문화, 체제, 제도 등에 어떻게 잘 적응하는가의 문제를 넘어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우리'로서 수용되고 인정받는가의 성원권(membership)의 문제가 놓여있다.

국제이주의 현 시대에서 기존 국가 공동체의 경계가 약화됨에 따라 기존의 국민국가 단위에 근거한 멤버십의 기초가 흔들리면서 새롭게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며, 타자와 우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부각된다. 따라서 이주민의 적응과 통합 문제의 근저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포용하고 배제하는 문제 즉 공동체의 성원권(membership) 문제가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의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성원권의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이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이주에 있어 '이주의 여성화'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이주국가 간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급의 국가에서는 경제적 문제해결 및 빈곤타과의 방안으로 주로 여성들이 이주하고 있으며, 이민을 수용하는 국가 역시 결혼, 저임금 가사노동의 필요 등 여성에 대한 수요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요인들은 국제적 조직과 브로커의 개입으로 합법적 혹은 불법적인 형태로 작동되면서 여성의 국제이주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북한이탈 여성 역시 이러한 이주의 여성화라는 구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북한 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요인과 중국 등의 경제적 유인 요인, 농촌 지역의 결혼 문제 등이 작용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성적 구성에서 여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주의 여성화라는 접근은 다른 한편으로 이주여성들 간의 상호비교를 가능케 하는 장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지역사회 적응문제를 성원권의 시각에서 살펴봄과 동시에 하나의 탐색적 시도으로써 북한이탈 여성주민과 결혼이주여성 간의 비교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 글의 분석을 위한 실증자료로는 2010년 충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주민 수요과약을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0년 10월 2일간 천안시 등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5개 시군의 130명을 조사한 자료이며, 조사응답자 중 여성을 따로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기본사항과 더불어 문화적 적응, 사회적 지지, 경제적 사항, 지역사회 참여 등 제반의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이론적 시각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성원권의 시각을 통해 분석하며 이를 결혼이주여성과 비교해본다. 이러한 과정은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성원권의 수준과 특징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분석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탈 여성주민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해 본다.

II.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관한 시각

1. 문화적 적응 중심의 접근법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이론적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이주민의 새로운 사회로의 문화적응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결혼이주민 등 외국출신 이주민과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새로운 문화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며,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역시 이주민의 새로운 문화로의 적응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적응'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환경인 남한사회의 규범과 가치, 행동양식을 배워가는 재사회화 과정으로 규정된다.(이경희·배성우 2006, 4)

이러한 시각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이주민의 적응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베리(Berry)의 이주민 문화 적응론을 들 수 있다.(이재민 2009, 40-42)

베리는 이주민의 문화적응 단계를 접촉시기, 갈등시기, 해결시기 등 5단계로 구분한다. 접촉이전 시기는 삶의 질 향상 등 개인적 동기와 전쟁위협, 가난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이주를 결심하는 시기이다. 접촉기는 이주민이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여 문화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새로운 스트레스의 직면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갈등기는 새로운 사회로부터의 문화적 압력이 개인·집단 간 갈등을 야기하는 시기로, 이주민들의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다음으로 위기기는 갈등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어 후회와 좌절, 가정불화, 공격적 행동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다. 다섯째 시기는 적응기로 갈등기와 위기기를 넘기면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시기이다.

아울러 베리는 이주민의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의 적응과 관련하여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통합형(integration)으로, 이는 이주민이 기존 사회와 새로운 사회를 비판과 수용의 과정을 통해 통합하는 균형적인 인식과 태도를 지닌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동화형(assimilation)으로, 이주민이 기존 사회에 대한 경시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여주는 유형이다.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 간의 갈등이 존재할 때, 비판적 재검토보다는 새로운 사회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적응한다. 세 번째 주변형(marginalization)은 이주민이 기존 혹은 새로운 문화 어느 쪽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적 위치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 원래 자신이 속했던 문화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문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형이다. 네 번째 분리형(separation)은 이주민이 기존의 문화에 대한 집착과 고수의 태도를 보이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이주민들은 주류사회를 배타적으로 보는 경향과 시·공간으로 분리되는 생활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이론적 시각을 적용하여 윤인진(2000)은 북한이탈의 경험과 사회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북한이탈 경험은 탈북이전단계, 제3국 체류단계, 국내입국 정착단계별로 구분하고 사회적응유형은 통합형, 동화형, 고립형, 주변화형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각 단계에서의 경험이 사회적응의 유형과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직업가치 등 취업, 소득수준,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소, 정착지원 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하게 전개되어왔다.(박

정란 2007; 조정아·정진경 2006; 유시은 외 2008; 안혜영·이금순 2007; 엄태완 2007) 이러한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특히 성별, 연령, 제3국 체류기간, 결혼관계 등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요인, 경제적 요인 등 경제적 요인에 주목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개인적 요인으로서 정착기간, 동거가족여부, 자존감, 대인관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경희·배성우 2006, 8) 또한,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관계를 의미하는 '사회적 지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적응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이재민 2009, 52-53)

2. 이주민의 성원권적 접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분석수준에서 주로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한국사회 적응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각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정착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 한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관계 등의 문제를 분석에서 제외하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일방적 적응 중심의 시각은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 주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지원 대상으로 고착화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객체화시키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원의 대상, 적응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한계를 넘어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주체이며 차별이 없는 동등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시각을 담아낼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해 제공되는 물질적 지지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참여를 포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을 <표 1>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표 1>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 유형

참여	높음 낮음	복지 등 물질적 이득과 지지의 제공	
		강음 자립형 의존형	약함 분리형 배제형

자립형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관련하여 하나의 유용한 접근법은 이주민의 성원권(membership) 시각이다. 성원권은 공적 공간(public space)에서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김현경 2007, 254) 아울러 완전한 성원권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이외에 공적 공간에서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괄한다.(양한순 2008, 541)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성원권의 적용은 다음의 몇 가지 배경과 특징을 지닌다. 이주민의 성원권에 대한 접근은 국제이주의 시대에 정치 공동체의 경계가 유동

적이고 중첩적인 상황에서 누가 우리인가에 대한 문제는 국민 정체성으로 모두 수렴될 수 없는 새로운 멤버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한다.(황정미 2010, 222) 즉,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민이 '우리'라는 범주에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기존의 '국민'이라는 정체성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하나의 대안으로 인간이라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아울러 성원권의 시각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이주민과 내국인의 관계, 이주민의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며 이에 따라 이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차별의 문제영역을 포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 문제를 삶의 공적 공간인 지역사회의 성원권이라는 시각을 적용한다.

한편, 여기서는 연구대상으로 북한이탈 여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이주민의 성적 구성과 그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이주의 구조로부터 비롯된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성적 구성을 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06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75%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7월 말 현재, 전체 북한이탈주민 19,391명의 69%가 여성들이다.

여성탈북이 주로 중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렇게 여성탈북이 증가하는 이유는 북한 내 배출요인과 중국 내 유인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내 요인으로는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이주하면서 여성에 대한 잠재 수요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북한 내 배출 요인으로는 북한의 경제난에 따라 여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거나 어려운 형편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 브로커의 존재와 이들과 연계된 국경경비대의 뇌물구조도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수암 201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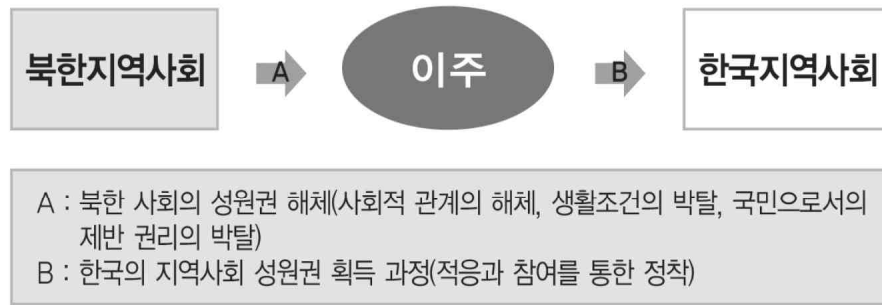
이러한 여성의 증대는 결혼이민자 중 여성이 많다는 점과도 유사하다. 즉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제이주의 시대에 주요 특징인 이주의 여성화라는 구조적 특징을 동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개도국의 여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떠안고 이주를 선택하며 이는 이주국의 산업구조 및 문화와 맞물려 결혼, 가사노동 등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의 수요, 불법적인 인신매매와 거래 등의 방식으로 이주가 실현되고 있는 현실이 북한과 탈북여성에게도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주의 여성화라는 측면에서 북한이탈 여성주민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III.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지역사회 성원권 분석

1. 분석틀과 분석방법

1) 분석틀

〈그림 1〉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지역사회 성원권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탈북과 한국사회 정착의 의미는 북한에서의 성원권이 해체되고 이주국인 한국의 자신의 삶의 공간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성원권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의 A의 북한 사회의 성원권 해체 과정은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당연시 되고 유지되어왔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즉, 가족 등 사회적 관계의 해체, 직업 등 생활조건의 박탈, 국민국가 혹은 공동체 내에서 유지되었던 권리가 박탈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에서 B의 한국의 지역사회에서의 성원권의 획득 과정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형성, 자립적 생활조건의 마련, 제반의 권리 획득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적응과 이행의 과정이 아니다. 성원권의 해체와 획득의 과정은 문화적 충격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 정체성의 혼돈, 주변인들의 차별적 시선 등을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주변의 도움, 스스로의 적응과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지역사회 성원권의 획득은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 관계 형성, 지역사회에서의 적극적 참여, 차별의 해소 등을 통해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성원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사회적 지지, 경제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차별에 대한 인식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살펴본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증자료는 충청남도의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송미영 외 2010)에서 수집된 조사 자료이다. 충청남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 수요조사 차원에서 이주민 분야에서 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는 조사 응답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들을 별도로 추출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는 개인적 사항이외에 문화적응 영역, 사회적 지지 영역, 경제적 사항, 지역사회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사항 등 4개 영역에 걸쳐 설문이 구성되었으

며, 총 조사응답자는 천안시 등 주요 거주지 6개 시·군 132명으로, 이중 여성은 101명이었다. 이는 충남거주 북한이탈주민 627명(2010년 7월 기준)의 21%로 상당히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을 포괄한 조사결과라 볼 수 있다.

〈표 2〉 충남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과 조사응답자 지역 구성

	조사 응답자 거주 현황	
	빈도(명)	비율(%)
천안시	24	18.2
공주시	27	20.5
보령시	13	9.8
아산시	12	9.1
서산시	21	15.9
부여군	35	26.5
계	132	100.0

이 글에서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지역사회 성원권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참여, 차별에 대한 인식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분석하고 있는데, 먼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것들을 사회적 관계망 속에 포함된 환경으로부터 상호교류에 의해 얻어지는 자원으로 정의된다. 사회적 지지는 자원의 양적 특성을 나타내는 구조적 차원과 지지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능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지지의 양적 특성은 개인에게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지지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포함한 자원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확인하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지지의 질적 특성인 기능적 차원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구성된다.(이계민 2009, 50-51)

여기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설문은 구조적 차원에서는 가족과 친척, 이웃사람, 직장동료와 상관, 동사무소 및 사회복지관 등 전문가, 성직자 혹은 일반 종교인 등 5개 범주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 수에 관해 질문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기능적 차원에서는 정서적 지지 범주에서는 “주변 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정보적 지지는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평가적 지지는 “주변 사람들은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준다.”, 물질적 지지는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한다.” 등의 질문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지역사회 참여는 경제활동 참여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구성되었다. 경제적 참여는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지 분석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직업의 유무를 포함한 고용형태, 직업의 만족도, 월 급여 수준, 취업의 경로 등을 통해 살펴본다. 한편,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는 참여 프로그램 개수, 프로그램의

내용, 참여한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등을 살펴본다.

차별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편견과 차별의 경험한 적이 있는지, 가까운 주변의 이웃들과 서로 도우며 지내는 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지의 설문을 5점 척도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이탈 여성주민 성원권의 특징과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에 조사되었던 충남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성원권 현황과 비교해 본다. 충남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성원권 현황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한 2009 충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김영주 2010)자료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두 조사간의 상호 관련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충남 북한이탈여성주민의 지역사회 성원권 현황과 특징

1) 북한이탈주민 현황¹⁾

전체적인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을 보면,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추이는 2002년 이후 입국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2006년 이후에는 매년 2,000명 이상이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0.7월 입국자기준)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7	합계
남(명)	829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6	324	6,097
여(명)	118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61	1,083	13,294
합계(명)	947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1,407	19,391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7%	69%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에서 주요한 특징은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2009년의 경우 전체 입국자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연령의 경우는 전체의 60%가 20대와 30대로 구성되어 있어 젊은 층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연령별 유형(∼ 10.7월 입국자기준)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누계(명)	754	2,238	5,319	6,297	2,987	916	880	19,391
비율(%)	4	12	27	33	15	4	5	100

거주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 전체의 65%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는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3%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지역별 거주 현황(∼ 10.7월 입국자기준)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충남	대구	경북	충북
인원(명)	5,514(30%)	4,752(26%)	1,658(9%)	736	679	627	606	600	525
지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인원	482	453	427	420	353	205	116	18,153명	

※ 사망, 말소, 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 제외

충남의 북한이탈주민은 천안시 등 6개 시·군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아산시에 제일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충남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지역 현황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인원(명)	비율(%)
천안시	130	20.8
공주시	63	10.0
보령시	67	10.7
아산시	189	30.1
서산시	103	16.5
부여군	37	5.9
기타지역	38	6.0
계	627	100.0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직업별 유형은 무직 부양이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동자가 높게 나타난다. 북한에서의 학력은 고등중학교 졸업이 전체의 70%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재북 직업별 유형(∼ 10.7월 입국자기준)

구분	무직 부양	노동자	관리직	전문직	예술체육	봉사분야	군인 및 공직원	계
누계(명)	9,579	7,528	371	419	177	744	573	19,391
비율(%)	49	39	2	2	1	4	3	100

〈표 8〉 재북 학력별 입국현황(∼ 10.7월 입국자기준)

구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	전문대	대학 이상	기타 (불상)	계
누계(명)	526	179	1,200	13,634	1,749	1,447	656	19,391
비율(%)	3	1	6	70	9	8	3	100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제도는 〈표 9〉와 같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는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복지, 교육 등 제반의 영역에서의 지원과 더불어 이들의 사회정착을 돕는 정착도우미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제반 현황은 통일부 자료(<http://www.unikorea.go.kr>) 참조.

〈표 9〉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구분	항목	지원 내용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600만원 지급
	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장려금 등 최대 2,440만원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등 최대 1,540만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 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취업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 최소 15만원 지급(노동부)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에 지원)	급여의 1/2(70만원 한도)을 최대 36개월간 지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55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알선
사회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인 세대 월 약 42만원)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부담 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금 지급
교육	대학특례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등록금 지원	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정착도우미		1세대 당 1~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지원 (전국 2,000여명)
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200여명), 취업보호담당관(55명), 신변보호담당관(700여명)

〈출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료(http://www.dongposarang.or.kr)참조〉

2)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지역사회 성원권 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의 성원권 현황과 특징을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참여, 차별에 관한 의식을 통해 살펴본다.

〈표 10〉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범주			구분	범주		
	빈도	비율	비율		빈도	비율	비율
연령	29세 이하	11	11.3	북한 최종 학력	인민학교	3	3.0
	30~39세	40	41.3		전문학교	13	13.0
	40~49세	24	24.7		대졸이상	7	7.0
	50~59세	15	15.5		합계	100	100.0
	60세 이상	7	7.2				
	합계	97	100.0				
북한 에서의 직업	노동자	39	39.0	종교	기독교	43	45.3
	농민	10	10.0		불교	6	6.3
	군인	1	1.0		기타	3	3.1
	사무원	18	18.0		없음	39	41.1
	가정부양	19	19.0		합계	95	100.0
	기타	13	13.0				
	합계	100	100				

구분	범주			구분	범주		
	빈도	비율	비율		빈도	비율	비율
건강 상태	매우 건강	5	5.0	북한 출신 지역	함경남·북도	78	77.2
	건강한 편	23	22.7		랑강도	9	8.9
	보통	25	24.8		평안남·북도	7	7.0
	건강하지 못함	33	32.6		강원도	1	1.0
	매우 안 좋음	15	14.9		평양시	5	4.9
	합계	101	100.0		개성시	1	1.0
탈북 당시 가족 형태	독신	36	36.4	결혼 관계	합계	101	100.0
	부부	16	16.1		미혼	40	40.8
	부모자녀	37	37.4		기혼	36	36.8
	본인과 친척	5	5.0		이혼	15	15.3
	기타	5	5.1		사별	3	3.0
	합계	99	100.0		동거	4	4.1
현재 가족 형태	독신	56	56.6	남한 거주 기간	합계	98	100.0
	부부	17	17.1		1~12개월 이하	32	32.7
	부모자녀	22	22.3		13~24개월 이하	25	25.5
	본인과 친척	2	2.0		25~36개월 이하	23	23.4
	기타	2	2.0		37~48개월 이하	8	8.2
	합계	99	100.0		49개월 이상	10	10.2
제3국 체류 기간	1~12개월 이하	24	28.2	합계	98	100.0	
	13~24개월 이하	4	4.7				
	25~36개월 이하	11	13.0				
	37~48개월 이하	6	7.0				
	49개월 이상	40	47.1				
	합계	85	100.0				

(1) 사회적 지지

■ 구조적 지지

북한이탈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사회적 지지를 가족·친척, 이웃, 직장 동료상관, 동사무소 및 사회복지관·상담기관 종사자 영역에서 그 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표 11〉 구조적 관점의 사회적 지지

구분	(단위 : 명)			
	가족·친척	이웃	직장·동료·상관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상담기관
없음	61	52	70	55
1~3명	31	27	12	42
4~6명	6	12	7	2
7명 이상	2	9	11	1
계	100	100	100	100
N	100	100	100	100
평균	.96	2.57	3.19	1.40
표준편차	1.729	6.011	9.757	5.059

구조적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는 직장, 동료, 상관이 평균 3.1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편차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받지 못하는 사

람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원인은 직장이 없는 북한이탈 여성주민이 많은 것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인 빈도수에서 '없음' 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족·친척의 경우, 61명, 이웃의 경우는 52명, 직장동료상관은 70명, 동사무소 등은 55명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망은 취약하며, 사회적 지지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북한이탈 여성들이 매우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 기능적 지지

기능적 지지의 각 범주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신뢰도 분석결과 정서적 지지 Cronbach의 알파=.861, 정보적 지지 Cronbach의 알파=.845, 평가적 지지 Cronbach의 알파=.881, 물질적 지지 Cronbach의 알파=.902로 나타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 기능적 관점의 사회적 지지

범주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지지	93	1	5	3.20	.927
정보적 지지	94	1	5	3.28	.949
평가적 지지	95	0	5	3.29	.986
물질적 지지	92	0	5	3.29	1.103

응답자의 기능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각각의 범주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 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는데, 각 범주의 사회적 지지는 3점 이상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통' 과 '대체로 그렇다' 의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이 주변으로부터 높은 정도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지역사회 참여

■ 경제적 활동

조사응답자의 경제적 특성으로 현재 고용상태, 직업만족도, 소득수준, 급여만족도, 구직 경로 등에 관한 현황은 〈표 13〉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고용형태는 '직업없음' 이 38.9%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정규직은 13.3%, 비정규직은 47.8%로 나타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수준은 미약하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취업기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3개월 미만이 20%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기간에서 1년 미만이 37.8%로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취업기간이 단기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 는 응답이 25.9%, '만족하지 않는다' 는 응답이 5.6%로 나타나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의 측면에서 급여는 50만원 미만이 26.1%,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27.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100만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탈

〈표 13〉 경제적 특성

(단위 : 명, %)

변수	범주	빈도	비율	합계
현재 고용형태	정규직(상용근로)	12	13.3	90(100.0)
	비정규직(임시근로)	10	11.1	
	계약직	6	6.7	
	일용근로자(일당)	13	14.4	
	기타	14	15.6	
취업기간	직업없음	35	38.9	90(100.0)
	3개월 미만	18	20.0	
	3개월~6개월 미만	6	6.7	
	6개월~1년 미만	10	11.1	
	1년~2년 미만	13	14.4	
현재의 직업만족도	2년 이상	5	5.6	89(100.0)
	직업없음	38	42.2	
	매우 만족	15	16.9	
	다소 만족	8	9.0	
	보통	22	24.7	
소득수준(지원금, 생계보호비, 아르바이트 포함)	다소 불만족	4	4.5	92(100.0)
	매우 불만족	1	1.1	
	직업없음	39	43.8	
	50만원 미만	24	26.1	
	50~100만원 미만	25	27.2	
현재 급여의 만족도	100~200만원 미만	22	23.9	92(100.0)
	200~300만원 미만	1	1.1	
	수입 없음	20	21.7	
	매우 만족	8	8.7	
	다소 만족	11	12.0	
구직 경로	보통	32	34.8	67(100.0)
	다소 불만족	12	13.0	
	수입이 없음	29	31.5	
	노동부고용안정센터의 알선	5	7.5	
	신변보호담당관 소개	9	13.4	
구직 경로	민간단체 도움	4	6.0	67(100.0)
	종교기관 소개	8	11.9	
	신문 등의 구직란 자구	19	28.4	
	지인 소개	17	25.4	
	기타	5	7.5	

여성주민의 생계수준은 낮고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급여의 만족도는 55.5%가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탈 여성들의 구직경로는 신문 등의 구직란을 통해 '스스로 알아본다' 가 28.4%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지인 소개가 25.4%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알선은 7.5%, 신변보호담당

관 소개는 13.4%로 나타나 북한이탈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정책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고려하면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적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취업이라고 볼 수 있다. 무직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취업한 여성들의 직업만족도나 급여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업의 문제는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생활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표 14〉 생활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제적 문제	39	44.3	10	13.9
문화차이	11	12.5	12	16.7
향수병 등 외로움	3	3.4	13	18.1
가족문제	5	5.7	9	12.5
건강문제	23	26.1	16	22.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	3	3.4	7	9.7
기타	4	4.5	5	6.9
계	88	100	72	100

〈표 14〉는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의 생활상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문제임을 잘 보여준다.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이 1순위 응답에서 44.3% 제일 높게 나타나고, 1순위와 2순위의 합계는 58.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지역사회 참여

〈표 15〉는 조사응답자의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를 참여 프로그램 개수, 프로그램의 내용, 참여한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참여 개수는 없음이 67.1%로 제일 높게 나타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참여한 경우 참여 개수는 1개인 경우가 제일 많아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의 참여 정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한 프로그램은 남한 문화체험이 46.3%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다른 프로그램의 참여는 전체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특히 자조모임은 3.7%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이 주변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참여한 프로그램의 도움정도는 53.8%가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여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한 경우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단위 : 명, %)

변수	범주	빈도	비율	합계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개수	1개	13	15.3	85(100.0)
	2개	10	11.8	
	3개	1	1.2	
	4개 이상	4	4.7	
	없음	57	67.1	
지역사회 참여한 프로그램 명	정신건강 및 상담	4	4.9	82(100.0)
	가족연결 및 멘토링	5	6.1	
	자조모임	3	3.7	
	진로지도 및 취업적응	7	8.5	
	남한 문화체험	21	25.6	
	기타	4	4.9	
	없음	38	46.3	
참여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남한사회 적응 도움 정도	매우 많은 도움	9	11.5	78(100.0)
	다소 도움이 됨	22	28.2	
	보통	11	14.1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3	3.8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1	1.3	
	참여 프로그램 없음	32	41.0	

(3) 차별관련 인식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차별에 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관계, 직장생활, 이웃, 일상생활 등의 영역에서 차별과 관련된 질문항목을 통해 살펴보았다.

가족생활의 경우 부부 및 자녀와의 갈등은 각각 15.3%, 15.3%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가족 내의 차별 및 무시에 의한 갈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직장생활의 경우, 차별과 편견을 경험한 경우는 32.9%, 직장동료들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19.7%로 나타나 직장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냉대와 편견을 느낀다는 응답은 7.1%, 주변 이웃으로부터 생활방식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18.2%로 나타나 직접적인 냉대는 아니지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북한이탈여성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의 경우는 남한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한다는 응답은 14.3%로 나타났고, 자신에 대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응답자는 27.1%로 나타나고 있다.

〈표 17〉은 북한이탈 여성주민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일상생활의 각 영역별로 비교해 본 것이다. 북한이탈 여성주민은 직장생활에서 가장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가정생활에서의 부부 및 자녀와의 갈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표 17〉에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 27.1%는 직장생활에서 차별을 느낀다는 응답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의 낮은 자존감 문제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16〉 가족관계, 직장생활, 이웃,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에 관한 의식

변 수		범주	빈도	비율	합계
가족	문화차이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 있음	전혀 그렇지 않음	25	32.1	78(100.0)
		별로 그렇지 않음	26	33.3	
		그저 그렇다	15	19.2	
		대체로 그렇다	9	11.5	
		매우 그렇다	3	3.8	
	자녀들과 의식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 있음	전혀 그렇지 않음	25	34.7	72(100.0)
		별로 그렇지 않음	17	23.6	
		그저 그렇다	19	26.4	
		대체로 그렇다	9	12.5	
		매우 그렇다	2	2.8	
직장	직장생활에서 편견과 차별 경험 있음	전혀 그렇지 않음	19	27.1	70(100.0)
		별로 그렇지 않음	10	14.3	
		그저 그렇다	18	25.7	
		대체로 그렇다	16	22.9	
		매우 그렇다	7	10.0	
	직장동료들은 나의 문화적 가치관을 인정함	전혀 그렇지 않음	9	13.6	66(100.0)
		별로 그렇지 않음	4	6.1	
		그저 그렇다	21	31.8	
		대체로 그렇다	25	37.9	
		매우 그렇다	7	10.6	
이웃	평소에 주변이웃들의 냉대와 편견을 느낌	전혀 그렇지 않음	37	37.4	99(100.0)
		별로 그렇지 않음	43	43.4	
		그저 그렇다	12	12.1	
		대체로 그렇다	6	6.1	
		매우 그렇다	1	1.0	
	주변이웃들은 나의 생활방식을 존중함	전혀 그렇지 않음	10	10.1	99(100.0)
		별로 그렇지 않음	8	8.1	
		그저 그렇다	44	44.4	
		대체로 그렇다	29	29.3	
		매우 그렇다	8	8.1	
일상 생활	남한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함	전혀 그렇지 않음	39	39.8	98(100.0)
		별로 그렇지 않음	29	29.6	
		그저 그렇다	16	16.3	
		대체로 그렇다	13	13.3	
		매우 그렇다	1	1.0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낮은 자존감을 가짐	전혀 그렇지 않음	24	25.0	96(100.0)
		별로 그렇지 않음	23	24.0	
		그저 그렇다	23	24.0	
		대체로 그렇다	17	17.7	
		매우 그렇다	9	9.4	

〈표 17〉 일상생활 영역별 차별 의식 비교

영역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웃 관계	낮은 자존감
차별 인식	15.3%	32.9%	18.2%	27.1%

3) 지역사회 성원권의 결혼이주여성과의 비교

다음으로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의 지역사회 성원권의 수준과 특징을 결혼이주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 여성주민과 결혼이주여성과의 비교는 사회적 관계, 경제상황, 차별 경험과 인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사회적 관계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표 18〉에서 나타나듯 사회적 관계는 모국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 자조 모임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18〉 충남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 연결망

(단위 : %)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어려운 일 의논대상	51.4	37.3	2.0
여가, 취미생활 같이 하는 사람	56.8	39.3	3.6
경조사에 참석하는 사람	27.1	59.5	3.4

〈표 19〉 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특징

	주변 한국인(남한)과의 관계	자조 모임
결혼이주여성	중간	강함
북한이탈여성	중간	약함

〈표 19〉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는 〈표 18〉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국인 중심의 사회적 연결망의 특징을 반영하여 중간 수준으로, 반면 자조 모임은 강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여성의 경우는 구조적 및 기능적 사회적 지지 상황을 고려하여 중간수준으로 평가하였고, 자조 모임은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약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비교해 볼 때, 양자 모두 주변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공통점을 보여주지만,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자조 모임과 같은 일차집단조차 미약하여 고립화의 상황에 있다는 차이점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북한이탈 여성주민이 결혼이주여성보다 더 취약한 사회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경제 상황

〈표 20〉은 이주민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활동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상용직의 비율과 소득의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비율을 상호 비교해 본 것이다.

먼저,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상용직의 비율은 각각 20%대로 낮은 것으로

〈표 20〉 이주민의 경제적 취약성

	상용직의 비율	저소득층 비율 ²⁾
결혼이주여성	21.9	58.4%
북한이탈여성	22.0	53.3%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을 보면, 양자 모두 저소득층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교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경제상황은 상호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유사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3) 차별 경험과 인식

〈표 21〉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차별받은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직장 및 일터에서의 차별이 50.1%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차별 역시 직장생활에서의 차별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주여성의 차별은 다른 곳보다 직장, 일터에서 보다 심각함을 드러낸다.

〈표 21〉 충남 여성결혼이민자 차별받은 장소

(단위: %)

구분	차별받은 장소				
	거리나 동네	음식점, 은행 등	공공기관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소	직장, 일터
차별 경험	42.5	35.5	23.6	17.2	50.1

한편,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상호 비교해보면 이주민 간의 편견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볼 수 있다. 〈표 22〉는 이주민의 편견적 이미지를 외부 시선과 자기 규정이라는 두 측면에서 기존 연구결과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표 22〉 이주민의 편견적 이미지의 특징

결혼이주여성 ³⁾	외부 시선 : 온정적 태도, 사회적 약자, 불쌍하고 도와주어야 자기 규정 : 국적을 취득했어도 이방인
북한이탈여성주민 ⁴⁾	외부 인식 : 사회보장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집단 자기 규정 : 삼등시민

이주민의 편견적 이미지를 외부 시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 여성주민은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동정과 배려의 대상으로 유사하게 인식되고 있다. 반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보다 관용적인 측면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당위성이 강하다면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경우는 달갑지 않은 사회적 복지수혜자로서 보다 차별적 시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민무숙 2010, 14.

4) 박순성의 2009, 125-133.

그리고 자기 규정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는 결혼이주여성은 국적을 취득했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취급당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삼등시민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결혼이주민이 타인으로서 대우받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북한이탈 주민은 열등한 존재로 대우를 받는다는 문제제기라는 차이점을 드러낸다. 이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탈 여성주민이 결혼이주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1. 분석의 요약

본고에서는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의 문제점 즉, 북한이탈 여성주민이 지원의 대상, 일방적인 적응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여성주민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와 사회적 인정의 문제를 담아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성원권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지역사회 성원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참여, 차별에 관한 의식 등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또 다른 이주여성인 결혼이주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상호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성원권의 수준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지역사회 성원권의 현황은 먼저, 사회적 지지의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이 매우 많고, 정서적 지지 등 기능적 관점의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인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사회적 관계는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의 경우, 경제적 참여문제에서는 취업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직업 없음'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기간이 짧고 종사상의 지위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불안정성에 놓여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참여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참여한 경우도 참여 횟수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차별을 생활 영역별로 비교해 보면, 가정생활에서의 갈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장생활에서의 차별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성원권 현황을 결혼이주여성과 비교한 결과는 북한이탈 여성주민 성원권의 취약한 수준과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탈 여성주민은 결혼이주여성보다 자조모임조차 발달되지 못해 고립형의 사회적 관계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는 결혼이주여성들보다 오히려 더 취약한 구조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제적 상황과 관련해서 결혼이주여성보다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취업상황, 소득수준을 비교한 결과, 상용직의 비율은 각각 20%대로 낮고 소득수준에서 역시 저소득층의 비율이 유사하게 과반수를 넘게 나타나는 유사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차별에 관해서는 북한이탈 여성주민과 결혼이주여성이 유사하게 차별받은 장소로 '직장'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주여성의 차별이 다른 곳보다 직장, 일터에서의 차별이 보다 심각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한편, 이주민의 편견적 이미지 유형에서는 일정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결혼이주여성보다 북한이탈 여성주민은 둘 다 사회적 약자이며 지원의 대상으로 유사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관용적 측면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당위성이 강하다면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경우는 달갑지 않은 사회적 복지수혜자로서 보다 차별적 시선이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자기 이미지 규정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은 국적을 취득했어도 여전히 이방인으로 취급당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경우는 삼등시민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상대적인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분석의 함의와 북한이탈 여성주민 정책 방향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충남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 현황을 성원권의 관점에서 유형화할 수 있다.

〈표 23〉 충남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적응 및 정착 현황

		사회적 지지망	
		강음	약함
지역 사회 참여	높음		
	낮음		고립형

충남지역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현황을 성원권의 관점에서 참여 및 사회적 지지망이라는 두 축을 교차해 볼 때, 지역사회 참여도 낮고 사회적 지지망도 취약한 고립형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을 위해서는 고립형의 양상을 탈피하여 보다 자립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취약한 사회적 관계 유형을 볼 때, 현재의 사회적 지지 관계의 수와 효용성을 보다 높이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이 고립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의 경제적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설문조사 분석에서 나타났듯 북한이탈 여성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이지만, 취업한 경우는 비록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직업 및 급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탈 여성주민에 대한 지원제도가 오히려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강화하고 이는 역으로 북한이탈 여성주민들의 낮은 자존감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깨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이들의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긍정의 선순환구조가 실현되는 정책방향의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암, "탈북자의 현황 및 인권", 『JPI 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2010.
-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김영주, 『2009년도 충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0.
- 김현경, "공적 공간에서의 무시와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역사와 사회』, 제75집, 2007.
- 민무숙, "이민자를 마주한 한국사회: 인식·태도 그리고 과제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토론회자료집,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한국사회의 통합』 2010.
- 박순성·고유환·소라미 외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9.
- 박정란 "여성 새터민의 직업가치 연구: 북한에서 남한에 이르기까지의 맥락적 접근", 『통일정책연구』제16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07.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http://www.dongposarang.or.kr>
- 송미영·유진석 외, 『2010년 제2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충청남도·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0.
- 안혜영·이금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분석", 『통일정책연구』제16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07.
- 양한순, "중국식 신자유주의와 차별화된 공동체 성원권", 『중국학연구』, 제45집, 2008.

- 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위기대처 향상 전략: 난민과 이주민 모델의 적용을 통하여”, 『통일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07.
- 유시은·엄진섭·윤덕룡·전우택,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년 패널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08.
- 윤인진, “탈북자 문제의 실태와 분석: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모델”, 『통일논총』,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0.
- 이경희·배성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06.
- 이재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 조정아·정진경,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갈등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06.
-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 황정미,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 관점에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0.